

시놉시스·앤시스 합병... '자산 매각' 조치로 조건부 승인

공정위,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 보호 합병 후 시장지배적 지위 우려 커져 해외 경쟁당국과 협력, 국제 심사 진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기업 결합을 우리 경쟁당국이 자산 일부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놉시스(시놉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350억 달러, 약 50조원)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으로, 양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또는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놉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의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공정위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 중 하

나인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을 중점 심사했다.

3개 시장은 공통적으로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사업 영역이 중첩돼, 이른바 수평결합이 발생하는데,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시놉시스와 앤시스가 이들 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양사 기업결합 이후 합산 점유율은 60~80%, '광학 소프트웨어'는 90~100%, '포토닉스 소프트웨어'는 55~75%로 모두 과반을 훌쩍 넘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된다.

또 종전에 양사 사이에 존재하던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지는 점, 두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국내외 고객사들도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선택지가 축소되고, 이들 회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 3개 시장 모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해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는 관련 자산 일체를,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놉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한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시정조치는 반도체 칩과 광학,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

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의 상황 속에서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애플, 구글, 퀄컴, 인텔 등 해외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기업결합임을 감안해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하며 심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두 회사 기업결합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 영국, 일본 경쟁당국이 자산 매각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고, 미국, 중국, 대만, 터키 경쟁당국은 아직 심사 중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전력산업, AI로 혁신 선도주자 될 것”

한전-서울대-KT

특화 AI 개발·실증 위한 업무협약 에너지·AI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한국전력과 서울대학교, KT는 지난 19일 서울대에서 '전력산업 특화 AI 개발·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세 기관은 먼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반 전력산업 특화 AI 솔루션·보안시스템 구축안'을 마련해 실증함으로써, 첨단 생성형 AI의 학습·추론 기능 등을 활용해 전력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및 AI융합형 전문인력 양성과 AI 기반 에너지 신사업·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연관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단계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관별로 한전은 전력산업 특화 AI 개발·활용 기본 방향 및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AI 기반 융복합 신사업모델 발굴·R&D·실증 총괄을 맡는다. 서울대는 전력시스템 선진화 전략방향 제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오른쪽)이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전력산업 특화 AI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유홍림 서울대 총장(가운데), 김영섭 KT 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보안기준 정립, 전문인력 양성을, KT는 보안기술 적용 클라우드 AI 모델 연계 실증, 최적 AI 솔루션 제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AI의 예측력과 실시간 대응력을 활용해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고객 서비스 혁신 및 IT 등 타산업과의 신사업모델 공동개발 등 범국가적 편익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금부터 인공지능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생태

계 전반의 AI 대전환과 미래 도약의 기회를 적극 모색할 때"라며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퍼스트 무버로 자리 잡고,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세 기관은 에너지·AI 융합 프로젝트의 협력 범위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에너지·AI 특화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해외 시장 공동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미식계 아카데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농식품부, 서울서 2년 연속 개최

미식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오는 22~26일 닷새간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가 공동 주관하는 '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아시아 지역 50대 레스토랑을 선정·발표하는 시상식이다.

시상식과 함께 베스트 50 담화에서는 조리장과 식품·음료 업계 관계자, 미디어 등이 미식 업계가 주목하는 화두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시상식 전야제인 '셰프들의 만찬'에서는 초청된 조리장들이 모여 개최지인 한국의 음식과 식문화를 즐기고 소통한다. 2년 연속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참석자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시상식 전 발표된 아시아 지역 51위부터 100위 레스토랑에는 본앤브레드(51위)를 비롯해 솔밤(55위), 스와니에(57위), 알라프리마(61위), 권숙수(62위), 정식당(90위) 총 6곳의 한식 레스토랑이 포함됐다.

올해 한식 레스토랑인 밍글스가 미쉐린 3스타를 획득하고 다양한 한식당이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렸다. 농식품부는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시상식에서 발표될 50위권에 한식 레스토랑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5일 대국민 한식 홍보행사 및 한식 워크숍을 '한국의 집'에서 개최한다. 일반 대중에게 세계 시장에 자리 잡은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미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식 토크콘서트와 한식 마켓도 운영한다.

폴리텍대 "지역거점 반도체 인재 양성"

'반도체인력양성센터' 개관

한국폴리텍대학은 20일 충북 청주시 청주캠퍼스에서 반도체 전문 교육센터인 '반도체인력양성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도체인력양성센터는 청주캠퍼스 내 연면적 2149㎡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 조성된 500㎡의 첨단 클린룸에는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300mm 웨이퍼 공정 장비를 갖춘 실습 공간이, 2층에는 반도체실습실, 강의실 등을 갖췄다. 반도체 양산 팹에 준하는 환경에서 반도체 전 공정 특화 실습과 첨단 장비 요소

기술들을 배울 수 있어, 현장 실무형 반도체 인력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실제 청주캠퍼스 반도체 관련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생들의 지난 5년간 취업률은 97.7%를 기록하며, 충북지역 반도체 기업 인력난 해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폴리텍대학은 급증하는 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도권(반도체융합, 인천, 성남), 충청권(아산, 대전, 청주), 영호남권(대구, 광주, 부산) 등 지역별 거점 캠퍼스를 지정해 지난 2년간 20개 학과를 신설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

체 인력은 2021년 기준 17만7000명에서 2031년 30만4000명까지 늘어나 12만7000명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올해는 1965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며 3개 학과를 추가로 신설해 지역 맞춤형 반도체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계열 학과는 2024년 대학정보공시에서 취업률 78.5%, 유지 취업률 94.1%를 기록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산업 구조 전환에 맞춰 반도체, 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학과 신설을 매년 적극 추진해왔다"며 "현재까지 84개년 신설 학과를 2027년까지 100개 목표로 해 산업 현장과 지역의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베트남 호찌민 인근에 물류센터 조성

해수부, 부지면적 5만5553㎡ 규모

해양수산부가 베트남 호찌민 시 동쪽에 자리한 교역요충지에 우리 기업을 위한 복합물류센터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 소재 연착(Nhon Trach) 6공단 부지에서 복합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센터는 부지면적 5만5553㎡(1만6804평), 연면적 2만6168㎡(7916평) 규모의 물류센터 2개 동(상온물류센터 1개 동, 저온물류센터 1개 동)으로 조성된다.

해당 센터는 내년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를 통해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베트남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이다.

물류센터가 들어설 동나이성 연착공단은 호찌민, 나트랑 등의 주요 시장과 인접하고 깃라이항, 까이펄항, 통탄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망과 연계된 베트남 남부 권역의 물류 중심지이다. 특히 연착공단에는 우리나라 대형 및 중소형 화주들이 밀집해 있어, 물류센터 완공 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우수한 교역환경을 보유해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진출해 있는 시장"이라며 "공동물류센터 조성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